

자 랑 스 런

안 전 인 제3호

한전기공주식회사 한강사업소 이진화 대리



지금은 규제완화로 제자리를 떠난 안전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인이 매진할 때

## 근로자 복지의 최고는 안전

2002년 한강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춘천댐을 찾았다. 바람에 떨어지는 벚꽃 눈과 벚꽃나무로 이루어진 터널을 지나는 동안 여기 저기서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다. 아마 오늘 찾아가는 이진화 대리가 있는 한전기공주식회사 한강사업소(조한섭 소장)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는 순간 환하게 이진화 대리가 반기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온다.

한전기공(주)한강사업소는 이곳 춘천댐을 축으로 하여 화천, 청평 등 5개 지점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수력발전의 총 본산이다. 발전기의 제작국이 각기 다른 총 17개의 unit와 함께 지리적으로 각기 떨어져 있어 안전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꼼꼼히 계획을 수립하여 하나하나 각 지점을 챙기는 이진화 대리는 『많은 발전기를 접할 수 있어서 각 발전기별 위험요소를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어서 이곳 근무가 나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긍정적인 말을 건넨다.

이처럼 매사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진화 대리에 대해 조한섭 소장은 『매사에 성실함이 배어 있습니다. 현재도 노동조합 국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발전기의 품질과 더불어 5개 지점의 안전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기 드문 직원입니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직원의 복지의 최고가 안전입니다. 안전이 무시된 복지는 있을 수 없지요. 그런데 직원의 복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수행하는 사람이 이진화 대리입니다.』 라고 조 소장은 덧붙인다.

업무 추진에서도 연간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계획보다 실질적으로 실천 가능한 부분을 어느 지점의 어느 부서가 몇일 몇일 어떤 안전 활동을 추진하는지 꼼꼼히 세운다. 신입사원이 이 계획서만 보면 별도의 OJT가 필요 없을 정도로 세심하다.

이러한 이진화 대리는 현재 안전과 품질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와 지식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자신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전기공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level up 시키는 방법이라고 한다.

재해는 안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보다 인간 존중의 이념이 모자라서 발생한다고 한다. 회사가 직원 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직원은 나로 인해 동료가 정신적, 물적으로 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재해는 없다는 것이 이진화 대리의 생각이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안전인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한 지금 침체되어 있는 안전관계자의 위상은 곧 본 궤도에 들어설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